

불러도 대답없고 기다려도 오지 않고...

경찰 음주운전 단속강화로 대리운전 수요 급증속 일부 기사 배짱 영업

지난달 박모(31)씨는 서귀포시내의 한 식당에서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대리운전을 불렀다가 낭패를 봤다. 대리운전업체에 연락 후 대리운전 기사를 배차를 수십여분 기다렸지만 연락이 오지 않았고, 결국 고씨는 평소 3만원이던 가던 대리운전 요금을 3만5000원으로 올리고 나서야 대리운전 기사를 배차를 받고 귀가할 수 있었다.

최근 경찰이 '제2 운창호법' 시행에 맞춰 음주단속을 강화하면서 대리운전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대리운전 기사들의 배짱 영업에 대한

이용객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일 대리업체 등에 따르면 제주 시내 기준 대리운전요금은 1만2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책정돼 있다. 또 서귀포시에서 제주시, 제주시에서 서귀포시의 대리운전 요금은 3만원에서 3만5000원이던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대리운전 기사들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지 않으면 대리 호출에 응답하지 않거나, 주차 시 추가 비용을 요구하면서 고객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최근 대리운전을 이용한 김모(41)씨는 "휴대폰 앱을 통해 요금을

확정하고 대리운전을 이용했지만 대리운전 기사는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다'며 추가 요금을 요구해 당혹스러웠던 적이 있다"면서 "대리운전 기사와 고객들 간에 서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사전에 고객에게 알려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반면 대리운전 기사들은 외곽지로 대리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다시 시내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한정돼 있고, 외곽지에서 시내로 나오는 시간도 만만치 않게 소요됨에 따라 기

본 금액으로는 외곽지의 대리운전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까지 대리운전 기사를 했던 A(29)씨는 "대리운전기사는 시간이 곧 돈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외곽지로 대리운전하는 경우에는 요금이 높게 책정되지 않으면 배차를 꺼릴 수밖에 없다"면서 "또 버스 시간이 끊긴 이후에 외곽지로 대리운전을 나갔다가 해당 지역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도 비일비재해 괜히 외곽지로 나갔다가 손해를 볼 수 있어 대리운전 배차에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ty456@ihalla.com



▲월 한담산책로 전경 1일 제주시 애월읍 한담해안 산책로를 찾은 관광객들이 제주의 바다 풍경을 느끼며 한가롭게 걸어가고 있다. 조상윤기자

노지감귤 총채벌레 급증 '비상'

농업기술센터 "기온 높아지며 생존율 상승"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는 관내 노지감귤 8개소를 대상으로 병해충을 예찰한 결과, 총채벌레 발생량이 전·평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6월 17일 노지감귤 불룩총채벌레 발생량을 조사한 결과 8개소에

서 평균 21.9마리의 총채벌레가 발견됐다. 전년(2.6마리)보다 6.4배, 3년 평균(10.1마리)보다는 2.1배 증가한 수치다.

농업기술원은 총채벌레가 월동시기에 성충 생존율이 낮지만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기온이 평년보다 높

아지면서 생존율이 상승함에 따라 총채벌레에 대해 신속히 방제해 줄 것을 농가에 당부했다.

총채벌레는 9.7℃ 이상이면 활동을 시작하는데 2월 평균온도가 9.3℃로 활동온도 수준과 근접해 조기에 활동을 시작하고 증식하는 등 생활사가 빨라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서귀포농업기술센터는 총채벌레 초기 발생밀도가 높은 감귤원에 종합살충제보다는 전용 약제를 살포해 밀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

조했다.

서귀포농업기술센터는 또 읍·동·리사무소 및 농·감협에 감귤원 주요 병해충 예찰 결과 및 방제 요령을 월 2회 제공하는 등 사전 피해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겨울철 기온이 높아 병해충 발생이 빨라지고 초기 밀도가 높아 병해충 방제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예찰을 통해 방제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조상윤기자

■ 문화예술진흥원·자연사박물관·돌문화공원 감사결과

운영위원 위촉 부적정·전시품 관리 부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돌문화공원관리소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위법·부당 사항에 대해 시정·주의·통보 등 33건의 행정상 조치와 10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고 1일 밝혔다.

도감사위 감사결과 일반 행정·예산·복무 분야에 있어 문화예술진흥원은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주요 공연·전시 유치, 도립무용단 운영계획 등을 심의를 받지 않았고 도립무용단 상임단원을 채용하면서 합격자 기준을 일관성 없이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속자연사박물관인 경우 임기가 2년인 운영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면서 문화·예술계 인사로 볼수 없는 자를 위촉한 사례가 적발됐다. 돌문화공원관리소는 운영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면서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거나 공개모집 절차 없이 임의로 위원을 위촉했고, 운영위원회 심의 시 해당 안건의 당사자를 제척하지 않고 있었다.

전시·소장품 관리 분야에 있어 문화예술진흥원은 전시를 위해 구입 또는 기증받은 미술품을 시도행정시스템에 등록하도록 돼 있는데도 총 205점의 미술품 중 17점만 등록했고,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사례 등이 확인됐다.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유물을 수장고가 아닌

장소에 보관하거나 수장고를 과포화 상태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드러났다.

공사·계약·안전 분야와 관련 문화예술진흥원은 문예회관 무대 기계·설비공사 준공 시 국민건강보험료를 정산하지 않은 채 대가를 지급하거나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계약 시 직접생산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부적격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전시환경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해 관련 시설 준공 후 5개월여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다른 시설 설치를 위해 일부 시설을 철거했고,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시 제안요청서 사업계획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도 협상대상자와 협상시 사업계획을 변경해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적발됐다.

돌문화공원관리소는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부처의 사전협의를 받지 않고 설계를 변경했고, 사토(암)를 매각·처분하면서 직접 처리하지 않고 공사업체로 하여금 일괄 처리하도록 했다. 설계 변경 시 사토 운반거리 중복 반영, 산업안전관리비 정산 부적정, 주요자재 검수 및 관리 부적정,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업무를 관련 규정에 위배되게 처리한 사례 등이 드러났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화재 피해 어린이집 1~2개월 임시휴원

학부모 "아이들 새로운 환경 적응 등 걱정"

서귀포시 "안전이 최우선 원아들 전원 조치 불가피"

서귀포시 토평동 소재 화재 발생 어린이집이 시설복구 기간 임시휴원에 들어가면서 해당 어린이집에 다니던 원아들의 전원이나 가정보육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맞벌이가정 등에서 새로운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야 하는데 희망하는 어린이집 입소가 여의치 않고, 자녀들의 새로운 환경 적응 등을 걱정하며 애매하고 있다.

1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화재가 발생한 어린이집의 시설복구 등 운영 정상화까지 1~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화재로 어린이집 1층(58㎡)이 전소되고, 2층과 건물에는 그늘음이 발생한 상태다.

해당 어린이집은 화재 발생일인 지난달 28일 휴원에 이어 1일부터 오는 5일까지는 어린이집 인근 지역아동센터의 여유공간을 활용, 어린이집에 다니던 원아 88명 중 40여명을 대상으로 임시보육중이다. 당장 새로운 어린이집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가정보육이 어려운 맞벌이가정

자녀들을 위한 긴급조치다.

이번주에 한해 임시보육이 이뤄진 후 오는 8일부터는 모든 원아들이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원하거나 가정보육해야 한다. 서귀포시와 해당 어린이집은 임시휴원을 학부모들에게 안내하고, 어린이집을 옮기는 수요 파악과 정원에 여유가 있는 인근 어린이집을 학부모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가정보육이 어려운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자녀가 다른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새로운 환경 적응이 어렵고, 원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자리가 없거나 원거리로 보내야 하는 어려움 등을 행정에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5월 말 기준 서귀포시 지역 123개 어린이집 정원 7594명이고, 현원은 5861명으로 정원충족률은 77.2%다.

시 관계자는 "일부 학부모들은 어린이집 피해가 복구될 때까지 임시보육을 원하기도 하지만 어린이 안전이 최우선으로 전원 조치는 불가피하다"며 "학부모들에게 현재 정원이 남아 있는 주변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안내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

이제, 병원비 걱정은 싹~ 지우세요!

[2019년 더 든든해지는 건강보험 혜택]

<p>MRI(복부, 흉부, 안면) 건강보험 적용</p>	<p>초음파(하복부, 비뇨기, 전립선, 자궁) 건강보험 적용</p>	<p>1세 미만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p>
<p>상급병실 23인실 건강보험 확대</p>	<p>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p>	<p>12세 이하 영구치 충치치료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건강보험 적용</p>
<p>난임치료기술 건강보험 확대</p>	<p>응급실·중환자실 진료 건강보험 확대</p>	<p>구순구개열 치아교정 건강보험 적용</p>